

# 성남시

이무슬 집터 다지는 소리

봉곡사 공주 명복 기원 천도제



#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 1. 전승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2. 유래 및 해설

이무술은 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옛 이름으로서, 원래 이무술이란 자연부락이었다. 300여 년 전 천렵을 즐기던 한 농부가 웅덩이에서 커다란 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기는 천년 만에 승천할 이무기로서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위령 승천제를 지내자, 그 자리에 난데없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그 후부터 이매동으로 불리웠다 한다.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도 경기지방의 음률이 반영되고 집터를 닦고 다지고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집터다지는 소리가 특색 있게 잘 발달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성남시의 농촌지역인 분당동 일대에 하루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을 지어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 지역에서 불리워지던 집터다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에 성남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조사 발굴 재현하여 육성



함으로써 내고장의 공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집터다지는소리 경험자 윤명용(83)과 황용주(중요 무형문화재 19호)씨 등이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다.

### 3. 구성 및 내용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증축을 할 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터를 닦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게 되는데, 이때 집을 지은 후의 복록과 집을 지을 때의 안전을 비는 고사덕담을 하고 소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의 소리는 고된 작업을 흥에 겨워 힘든 줄 모르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는 건설지향적이고 미풍양속이 듬뿍 담긴 것으로, 음률은 서울과 경기일원이 비슷하다. 왜냐하면 경기도 중심부에 한양(서울)이 있고 그 둘레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집터 다지는 소리도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리워졌는데 사대문 안과 밖의 음률은 역력한 차이가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서두가 “에이여라”로 시작되는데 비해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서두가 “네이여라 지경이요”라고 불리워졌다.

그 소리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소리 에이여라 지경이요  
 후 렬 ” ” (3번)  
 선소리 지경꾼들-말들어라  
 후 렬 에이여라 지경이요  
 선소리 일시에 들었다 일시에 놓고  
 후 렬  
 선소리 힘있게 들었다 힘차게 놓자  
 후 렬

선소리 한눈팔다간 큰일난다  
 후 렬  
 선소리 앞무릎 받등을 조심들라세  
 후 렬  
 선소리 만세복록 누린집터  
 후 렬  
 선소리 여러벗넘베 힘을 빌어  
 후 렬  
 선소리 이 집터를 다져나보세  
 후 렬  
 선소리 산지조종은 골룡산이요  
 후 렬  
 선소리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후 렬  
 선소리 골룡산 줄기가 뻗어내려  
 후 렬  
 선소리 백두산이 생겨있고  
 후 렬  
 선소리 백두산 줄기가 흘러내려  
 후 렬  
 선소리 금강산이 생겼구나  
 후 렬  
 선소리 금강산이 좋지만  
 후 렬  
 선소리 오대산이 명산일세  
 후 렬  
 선소리 수락산, 삼각산 명산인데  
 후 렬  
 선소리 인수봉에 정기가 흘러  
 후 렬  
 선소리 인왕산이 솟아있네  
 후 렬  
 선소리 북악산에 산새도 좋아  
 후 렬  
 선소리 등구재 말리재 둘러있고  
 후 렬

선소리 관악산은 화산이라

후렴

선소리 좌우를 살펴보니

후렴

선소리 산도만리 물도만리

후렴

선소리 청룡백호를 날려놓고

후렴

선소리 한강수로 구세를 잡아

후렴

선소리 남한산성 나린즐기

후렴 에이여라 찌흥

선소리 영장산에 힘을 얻어

후렴

선소리 학의등에 터를 닦고

후렴

선소리 온천하에 부귀영화

후렴

선소리 이 집터에 다들있네

후렴

선소리 이 집 짓고 삼년안에

후렴

선소리 고사 한번 잘 지내드니

후렴

선소리 아들낳으면 효자낳고

후렴

선소리 딸을 낳으면 열녀로다

후렴

선소리 효자, 충신 열녀두니

후렴

선소리 나라에는 충신되고

후렴

선소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후렴

선소리 일가친척 화목하고

후렴

선소리 이웃벗들과 우애하며

후렴

선소리 천세만세를 누리겠네

후렴

선소리 여러벗님 지경꾼아

후렴

선소리 목이 마르면 술이있고

후렴

선소리 배가 고프면 밥도있네

후렴

선소리 이웃집 아낙네 인심이 좋아

후렴

선소리 술과 안주도 장만됐네

후렴

선소리 힘차게 다지고 마시고노세

후렴

선소리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후렴

선소리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후렴

선소리 젊어 청춘에 일하며 노세

후렴

선소리 젊은 사람들 힘들 좋아

후렴

선소리 지경다지기가 잘되어 간다

후렴

선소리 이번부터 힘을내어

후렴

선소리 더높이들었다 힘있게 놓아라

후렴

선소리 에여라 찌흥

후렴 " "

이 찌흥 소리부터는 지경들을 힘있게 높이 들었다 떨구는데, 이 자리는 대갓집 기둥을 세우는 자리가 된다. 이 일이 끝나면 술잔치

가 벌어지며 다시 지경이 시작되면 자작소리로 방물가 가사 중 재미있는 가사도 많이 사용되었다.

#### 4. 출연 인원

##### 1) 출연종목

참가구분	민요
참가종목명칭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출연인원	130명
경연소요시간	90명
경연장소	40명
	30분
	마당

##### 2) 고증및 지도위원 명단

고증	윤명용	현지 주민 경험자 성남시 거주
	김영한	현지 주민 경험자 성남시 거주
황용주	국악 연구가 중요무형문화재 19호 보유자 서울 거주	
	박상규	경원대 교수 민속학회 이사 서울 거주
감수	최종민	방송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성남시 거주
지도	방영기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이수자 한국국악협회 성남시지부장 성남시 거주

#### 3) 출연자 명단

강대준	김태희	서정호	임순자
강순애	김금선	서민용	임균수
강성옥	김예숙	서상임	임연봉
강영순	김영미	신일용	장용석
강명희	김옥진	양정환	장석택
강영숙	김기순	엄민석	정광우
곽영중	김영섭	오세운	정지용
권수정	나창주	오경자	정승우
권선예	남정희	우의남	정수동
권성옥	문성진	유정열	정동춘
권성덕	박수동	유차년	정은자
고일순	박현록	유지현	전배환
고상호	박봉희	유현순	전용철
기효남	박경오	유옥자	조일남
길옥희	박경학	유재섭	조종원
김길수	박장순	윤제섭	주영민
김민호	박오규	이병임	주미숙
김동훈	박길환	이재삼	주진은
김중일	박수옥	이상열	최광로
김수남	박승규	이호석	최봉수
김정일	박복희	이상균	최봉열
김경화	박종남	이용원	최병기
김영훈	박영분	이혜분	최현숙
김지옥	방성식	이갑득	최혁
김영환	박귀순	이병오	최만옥
김귀녀	백선우	이덕식	하경수
김숙자	백승민	이명구	한명숙
김숙희	백장순	이경자	허경숙
김영숙	백승서	이명희	허계숙
김영자	송순옥	이봉난	허영복
김덕규	송용현	이봉재	홍대희
김영례	성낙여	이영신	홍성옥
김민배	손지화	이영례	
김만태	손대성	이은순	

# 봉국사 공주 명복 기원 천도제

## 1. 전승지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50-2번지 봉국사

## 2. 유래 및 해설

봉국사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50-2번지 영장산 서북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경기도 지방 유형문화재 제 101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광명전은 조선 18대 현종(1674년) 8월 15일 중추절에 축존화상이 창건하였는데(조선불교통사) 짝도 못짓고 세상을 떠난 현종의 두 따님 명혜와 명선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그 후로 봉국사에서는 매년 중추절에 왕비가 직접 참가한 가운데 공주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를 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천도제를 올려 망자의 혼이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였는데, 일반 사가에서는 '진오귀굿'을 황가에서는 '새남굿'을 행

하였다.

새남굿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의식과 무속의식이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진오귀굿이 보통 4거리인 데 비해 새남굿은 12거리이므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성남문화원에서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해서 세계속의 경기민속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옛날 우리 지역 봉국사 대광명전에서 행하여지던 공주 명복 기원 천도제를 전문가의 고증과 지도를 바탕으로 재현하였다.



